

“화물차량 운행하는 만큼 손해… 손 놓으면 생계걱정”

요소수 품귀사태 여파 일파만파 광주·전남, 이달분 까지만 생산가능 금호고속 재고물량 연말까지 바닥 버스 1000여대 ‘운행정지’ 위기 기아 광주공장 5t 탁송 화물차량 3개월 내 정상화 안되면 ‘운행중단’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로 전국 최대 규모의 운송버스 사업체와 화물차·건설 중장비업체 등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업체들은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조만간 산업·건설현장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발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국에 걸쳐 승객을 실어 나르는 금호고속의 경우 요소수 재고물량이 연말까지 모두 바닥날 상황에 처해 긴급 수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버스 1000여대가 동시에 멈춰 설 위기에 직면해 있다.

9일 광주·전남지역 산업계 등에 따르면 경유 차량용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필요한 요소수 생산가능 물량은 현재 11월분까지다.



경유 차량에 요소수를 넣는 모습.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지난달만 하더라도 10l 1통이 5000원 안팎이던 가격은 최근 치솟아 5만~6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다. 이마저도 판매처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화물차주들은 전국 화물차량 40만 대 중 60%가량 해당하는 24만여 대가 요소수를 주기적으로 보충해야 하는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EURO5·6에 해당한다며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수출용 자동차를 목표량으로 실어 나르는 5t 탁송화

물차량 100여대 중 SCR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향후 3개월 이내 요소수 수급이 정상화 되지 않으면 운행 중단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요소수 대란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는 하고 있지만, 현재 사안이 심각해 예외 주시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고속은 요소수 확보 어려움도 문제이지만 가격 폭등까지 겹쳐 이종고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기존에는 1당

5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 어제 확인한 결과 가격이 300% 폭등해 1500원까지 치솟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요소수 대란까지 장기화 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본부 관계자는 “현재 요소수 시세대로라면 차량 운임비 만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화물차주들 입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만큼 손해이고, 그렇다고 일손을 놓으면 당장 생계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컨테이너 차량 기사는 “주유소에서 단골손님만 요소수를 넣어주는 경우가 흔하다. 이마저도 금세 바닥이 난다”며 “전날 광양 모 주유소엔 입고 4시간 만에 요소수 1000l가 동났다. 최소 10l 씩만 넣는다고 해도 100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화물 운송 기사들끼리 모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최근 경남 사천 휴게소상·하행선에 요소수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공유되자 기사들이 몰려들어 휴게소 진입로까지 긴 줄을 늘어섰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고

속도로 휴게소는 10l 기준 1만5000원~2만 원, 개인 주유소는 3만~5만 원까지 가격이 뛰었다. 리터당 가격으로 따지면 유류비보다 비싸다”며 “가뜩이나 고유가로 힘든데 세제 인하에 따른 유가 보조금·운임도 줄어 다들 힘들어 한다. 그나마 안전운임제 적용이 되는 차종을 제외하면 운행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해 많은 기사들이 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화물차 기사는 “요소수 투입 차량 차주들은 모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미리 사 놓은 사람들끼리 나눠 쓰기도 하고 판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면 화물차가 멈춰 설 수밖에 없다. 물류 대란 현실화는 이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한편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 2015~2016년 사이 출고된 모든 경유차량은 요소수를 넣어야 운행이 가능하도록 의무화됐다.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린다.

일반적으로 경유 승용차의 경우는 1만5000~2만여 km 마다 한 번 정도 넣어주면 되지만, 화물차는 수백 km 운행 시 마다 요소수를 반드시 보충해줘야 한다. /광주=김태우 기자 ts7080@metroseoul.co.kr

중기유통센터, 소상공인 구독경제 지원

경상남도도와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등 추진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경남지역 소상공인들 판로 확대를 돕는다.

중기유통센터는 구독경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경상남도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구독경제’란 정기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유통 서비스로 소비자는 지역의 우수 상품을 정기적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고, 소상공인은 정기적 매출 판로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상품 발굴 및 판촉 지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사업의 공동 정책 홍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각 기관이 보유한 지자체물(경남물), 물류 등 인프라를 활용해 ‘소상공인 구독경제 생태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오른쪽)가 박종원 경상남도 경제부지사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유통센터

계 조성’ 목표도 순차적으로 달성해나갈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다양성을 갖춘 지리적 특성으로 차별화된 특산물 확보가 가능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e경남물은 올해 상반기 동안 전년도 전체 매출액을 초과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상품이 생산되는 경남의 장점을 활용하고 중기유통센터의 축적

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독경제 참여 경험을 제공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는 “이번 경상남도와의 협약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구독경제 판로확보는 물론, 시너지 기반을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며 “소상공인이 손쉽게 구독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지급

12.6만여 농가에 ha당 평균 66만원

전라남도는 2021년산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570억 원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지역 12만6000여 농업인이 해당하며, 평균 지급 단가는 ha당 66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1천㎡(0.1ha) 이상 면적의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는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남도가 쌀 시장 개방, 빈번한 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

운 쌀 산업을 지속하고, 벼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해 2001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직불금,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공익수당과는 별도 지급한다.

2001년 180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까지 투입한 총사업비는 9천12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벼 재배 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는 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김경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도 전남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지급해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목포 용당1동에 ‘동목포 역사’ 재현

기관차 운반 완료, 세트장 공사 추진

목포시는 국토교통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용당1동에 동목포 레일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공모에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은 동목포 역사(驛舍) 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의원, 주민 등 건의를 수렴하고 전라남도의 추가 지원을 통해 ‘동목포 역사 세트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목포 역사 세트장 조성사업’은 ▲열차 거처 주변환경 조성 ▲구형 기관차 구매 및 운반 ▲동목포 역사 세트장 및 포토존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주변 환경 조성과 구형 기관차

구매 및 운반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동목포 역사 세트장 건축공사를 추진 중이다.

구매한 기관차는 주민협의체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구형 전기동차로 결정됐다.

과거 동목포 역사에서 운영됐던 기관차는 동목포 역사 재현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지만, 크기가 크고 난간 등이 높아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관차 내부 활용도가 떨어진다. 반면 전기동차는 상징성은 다소 부족하나, 내부공간이 넓어 협동조합 등 운영주체의 활용이 용이하며 안전사고 우려가 적고 단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안동시, 레슬링 선수대회 등 체육행사 개최

단계적 일상회복에 배구·골프 등

경북 안동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각종 체육행사를 다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15회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 겸 ‘제32회 추계전국대학레슬링선수권대회’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안동체육관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1일 안동레이크골프클럽

에서 ‘제1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초등학생 골프대회’를 시작으로 6~8일에는 ‘2021 ITF 안동 국제 주니어 테니스대회’가 안동시민테니스장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도 마련된다. 오는 12일 강변그라운드골프장에서 ‘제16회 안동웅부기 생활체육그라운드골프대회’가 열린다.

또 궁도, 당구, 파크골프, 바둑, 야구, 패러글라이딩 등 8개 종목의 ‘안동웅부기(배) 생활체육대회’도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같은 각종 대회 개최는 지난 1일 발표된 ‘제1차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감염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선수자 및 관계자 전원 백신완료 또는 PCR 음성 확인, 마스크 착용 후 발열체크, 무관중 대회, 개회식 생략, 함성 자제 등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경기를 운영할 방침이다.

/안동(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